

【2023 년 변리사 1 차 시험 상표법 해설(A 형)】

문제	정답	해설
21	㉓	상표법 제 7 조에 열거된 특별수권에는 “무효심판에 대한 답변서” 제출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22	㉓	ㄱ. 상표법 제 36 조 제 3 항 ㄴ. 상표법 제 36 조 제 4 항 “표장에 대한 설명”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ㄷ. 상표법 제 36 조 제 5 항 지리적 표시 상품의 생산지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라, 지리적 표시이 정의에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ㄹ. 상표법 제 36 조 제 6 항
23	㉔	ㄱ. 상표법 제 34 조 제 1 항 제 7 호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ㄴ. 상표법 제 34 조 제 1 항 제 20 호 ㄷ. 상표법 제 34 조 제 1 항 제 11 호 수요자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어야 한다. ㄹ. 상표법 제 34 조 제 1 항 제 2 호
24	㉓	㉓ 상표법 제 8 조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25	㉕	㉕ 상표법 제 96 조 제 1 항 제 2 호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소멸(권리의 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6	㉑	㉑ 상표법 제 184 조 제 2 항
27	㉑	㉑ 乙이 상표권자나 정당한 사용권자가 아니므로 乙이 丙에게 판매한 상품에 대해서는 적어도 권리가 소진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법리는 丙이 선의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한편 지문상 불명확한 것은, 丙은 상품을 양수하였을 뿐 丙이 직접 그 상품을 다시 유통했다는 사실관계가 없으므로, 상표의 사용이 아니므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그러나 다른 지문과의 관계상 상대적으로 볼 때, 1 번 지문은 “권리소진의 항변”이 인정될 것인지를 묻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8	㉔	㉔ 상표법 제 119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취소심판의 취소심결이 확정되는 경우 심결이 확정된 때부터 장래로 상표권이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심판 계속중에 상표권이 포기로 소멸된 경우라면 심판을 유지할 이익이 없으므로 심판은 심결로서 각하될 것이고, 심리를 계속해서 진행할 것은 아니다.
29	㉕	상표권의 효력이 확인대상표장에 미치지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목적상, 선사용권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30	㉔	상표법 제 110 조 제 4 항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총평】

지엽적이고 출제가능성이 낮은 곳 보다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내용을 위주로 준비하셨다면, 10 문제 다 맞추는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 21 번, 24 번, 25 번은 특허법 베이스로 해결하는 지문입니다. 특허법 베이스가 충분하다면(조문중심), 무난하게 정답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특허법 베이스가 부족하다면, 정답을 고르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 22 번, 23 번, 26 번 30 번은 상표법 조문을 물어보는 문제로 조문이 익숙하다면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시험장이 주는 압박감 속에서 지문을 천천히 보지 못하였다면 23 번은 정답을 고르기 어려웠을 것이다, 평정심을 가질 수 있었다면 정답을 고르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23 번은 “등잔 밑이 어둡다” 라는 느낌의 문제입니다.

【향후 공부방법】

올해 1 차시험에 임박하여 상표법 심사기준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저 역시 변경된 심사기준을 확인하였고, 확인해본 결과 출제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상표법 심사기준에만 있는 내용이 출제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며, 올해에도 역시 전혀 출제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심사기준이 전혀 완전히 출제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항상 눈 여겨 보고 있습니다. 상표법은 제가 전달드리는 별도의 자료가 없다면, 보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법조문"과 "판례"를 반복학습하시고, 올해에는 법조문 위주의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에도 법조문과 판례를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김영남 드림.